

요약컨대, 현재의 교회 안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집단들(복사와 충분이 의사거래를 할 수 있는 상담집단으로 만들 때 교회성장은 앞당겨 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서는 주로 개인 상담에만 치중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집단상담이 인간의 성장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도 서 목 록 >

1. 단 행 본

- 김 정한, 「生活指導」, 서울:형설출판사, 1982.
- 노울즈, 말콤 S and 노울즈 홀다 F. 「그룹다이내믹스 入門」이수민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5.
- 리그랜, 앨빈, 「教会開發論」 박 근원 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 신학교재편찬위원회 편, 「간추린 목회상담학」 서울:세종문화사, 1980.
- 아담스, 제이 E, 「복음주의적 목회상담」 全 東植 역, 서울:성광문화사, 1983.
- 이 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박영사, 1982.
- 이 형득, 「集團相談의 實際」, 서울:중앙적성연구소, 1979.
- 정 원식, 박 성수, 「카운슬링의 原理」, 서울:교학도서(株), 1978.
- 골라인 벨, 하워드 J, 「現代 牧會相談」, 박 근원 역, 서울:전망사, 1979.
- _____, 「효과적인 목회상담」, 민 병길 역, 서울:대한예수교장노회, 1971.
- 힐트너, 시워드, 「牧會 카운셀링」, 마 경일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6.
- 황 의영, 「목회상담원리」, 서울:생명의 말씀사, 1970.
- Drakeford, John W., Counseling for Church Leaders,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61.
- Knowles, Joseph W., Group Counseling,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64.
- May, Rollo, The Art of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39.
- Narramore, Clyde M., The Psychology of Counseling, Grand Rapid, Michigan: Zoudervan, 1960.
- Oates, Wayne E.,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59.
- _____, Protestant Pastoral Counseling,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2. 정기간행물

- 김 득렬, “개인과 그루프” 「기독교사상」, no VII 권 2호(1962. 2) pp. 96~100.
- 안 형직, “理代 教会에서의 그릅活動”, 「교회행정」, (1974. 5~6) pp. 16~28.

현대중공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

- 마르크스주의 배경하에서의 기독교의 장래 -

P. Richard Bohr
번역/ 양 낙 흥*

차 례

I. 공산화 이전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III. 모택동 이후의 기독교와 현대화
II. 모택동 치하에서의 기독교	IV. 중공교회의 조직

1980년 이래 중공 신문에는 공공예배의 부활에 대한 광목할만한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중공의 기독교 공동체에서보다 더 극적으로 종교가 재등장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1949년 공산주의자들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중공교회에는 약 400만의 중국인 신자가 있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선교지에 보다도 더 많은 인적 자원과 정력과 돈이 투입된 선교 노력의 결과였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79년에는 아주 극소수의 중국인 신자들만이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그런데 1981년 성탄절에는 5,000명 이상의 중국인 카톨릭 신자들이 최근에 세워진 북경의 처녀잉태교회(church of the Immaculate Conception)에 운집했는데 그들은 거기서 푸 티산 주교(Bishop Fu Tieshan)의 설교를 들었다. 그는 바티칸의 승인없이 주교직을 맡고 있었다. 푸 티안 주교는 모여든 신자들에게 좋은 카톨릭교인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중공의 현대화를 위한 애국적인 일꾼이 되라고 권면했다. 일년 뒤 성탄절에는 800여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북경에 있는 종원멘(chong wen men)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1979년 이후 북경에서 세번째로 다시 문을 연 신교회였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24년만에 처음으로 거기서 성가대가 “저들 밖에 한 밤중에”라는 찬송을 부르는 것을 사람들은 들을 수 있었다.

1981년 10월 중공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표단이 1949년 이래 처음으로 제1 차 국제 에큐메니칼 회의에 참석했다. 그들이 세계에 공포한 것은 30년동안이나 일 반교회에서 고립된 후 중공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외국 그리스도인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오히려 세계 기독교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평등과 상호존중이라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지난달에는 난징에 있는 중공 개신교 신학대학원이 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맡게 하겠다는 팔목 할만한 제안을 하였다.

중공에 있어서 종교의 재흥은 그 혼란한 역사 가운데 극히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다. 종교는 때때로 국가에 의해 허용이 되었고 어떤 때는 혹독한 핍박을 받았다. 이와같이 허용과 핍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은 현재의 자유로운 국면에서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대한 세 개의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시킨다.

(1) 중공에 있어서 기독교와 국가사이의 관계는 어떤 역사를 거쳐 왔는가? (2) 종교적 관용이라는 현재의 공식적 정책은 어떤 것인가? (3) 교회와 국가 관계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I. 공산화 이전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현재 중공의 종교적 관용 정책은 교회와 국가 관계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관습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2000여년전 황제 시대의 시작 이래로 종교는 국가에 종속된 것이었다. 종교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보통, 정부의 감시하에 허용이 되었다. 정부가 계속 감시했던 이유는 도교이외의 중국의 주된 종교가 모두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제 2세기로부터 시작된 과정이었다. 여기에는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포함된다. 오랜 세월 동안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아주 익숙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불행히도 중국의 종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교로 남아 있었다. 포착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들은 가끔 덕스러운 정부와 분배적 정의에 대한 개명을 소개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사상에 고무된 신도들은 왕조의 전복을 기도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들은 즉시 재판에 회부되었다.

* P. Richard Bohr는 Minnesota 주 St. Paul에 있는 Mid west China Center of 행정감독자이다. 그는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현대중국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중국의 기근과 선교」라는 저서를 낸 바 있다. 「The Religion of the Taipings」는 곧 출간 예정이다.

종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는 중에도 황제들은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 예외의 주시했는데 그들은 기독교를 잠재적 반역세력으로 간주했다. 그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과의 유대때문이었다. 로마 카톨릭은 16, 7세기에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주로 마데오리치와 다른 제수이트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중국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19세기 경에는 황제정부의 중국의 상류층의 다수가 중국에 대한 기독교의 침입(그들은 그렇게 말했다.)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독교를, 중국을 지배 하려는 서양의 시도와 같이 취급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기독교를, 사회저변을 흐르고 있는 권위주의 적이고 가부장적인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수 많은 반 기독교적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 프랑스, 프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1858년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 속에 기독교의 공식적인 허용과 선교사 및 중국인 신자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조문을 삽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독교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에 더욱 불을 지르는 결과를 낳았다.

적대적인 분위기에 불구하고 중국인들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 수용적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이 그러했다. 19세기 후반에 중국을 서구적으로 현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그들은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별히 그들은 기독교가 서양의 다이내믹한 철학과 물질적 능력의 열쇠가 된다고 보았다. 그들이 확신한 것은 기독교가 새롭고 강력한 중국을 창조 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도덕적 개혁을 위한 토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독교를 소개하고 병원, 학교, 대학들을 세우며, 과학과 기술, 여성의 권리와 민주적 제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선교사들의 노력을 환영했다.

비록 기독교 인구는 중국 전체 인구의 일 퍼센트를 넘지 못했지만 그들은 국가의 현대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11년 중국의 마지막 황제는 미션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개신교도 순얄센(Sun Yat-Sen) 박사의 추종자들에 의해 전복되었다. 그 다음 40년 간 중국과 기독교는 밀접히 연결됐고 선교사들과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중국을 서양식으로 변화시키고자 열심히 일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Generalissimo와 장개석 부인의 치하에 있던 민족주의 자들의 시기에 많은 엘리트 지도자들은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1949년 경에는 약 8000 명의 선교사 후견으로 130개의 교파와 750,000 명의 중국인 개신교도가 생기게 되었다. 그들대부분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었고 240개의 개신교 중등교육기관, 44개의 신학교 그리고 중국인 엘리트 중에서 영향력있는 인물들을 위한 13개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약 3,275,000

의 중국인 천주교 신자들이 도시와 촌락에 산재해 있다. 그들의 목회자중 2,090명은 외국인이고 2,968명은 중국인인데 그들은 2,071개의 초등교육기관, 189개의 중등교육기관, 그리고 세계의 종합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II. 모택동 치하에서의 기독교 : 1949년에서 1976까지

1949년에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에게 승리했을때, 모택동은 이제 중국은 서양의 “제국주의” 분파와 전통적 중국의 “봉건적” 권위주의에 대해 “꺾기했다”고 선언했다. 그 새로운 공산주의 정부에게 있어 종교란, 중국 농민을 그 봉건적 과거에 묶어두는 “네개의 강한 밧줄” 중 하나일뿐이었다. 도교와 불교, 그리고 그 양자의 요소를 조금씩 간직하고 있는 기타의 여러 대중적 종교들이란, 농민을 지주 — 관료 계급에 복속시키는 비과학적 세계관으로 인식되었다. 기독교가 비난을 받은 것은,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 민족주의 정권 속에서 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이유와 한편으로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문화적 “제국주의” 및 “부르조이” 구성에 의존하게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비록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우습게 보기는 했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종교활동을 인정하려고 했다, 종교란 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물질주의 속에서 교육이 확대되면 궁극적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의견에 그들은 동의하고 있었다. 모택동 자신은 종교적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내의 수백만 이슬람교도들과 불교도들의 반감을 사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강력하고 자존적인(Self-reliant) 사회주의적 중국을 건설하는데 헌신된 모든 사회집단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를 열망했다.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종교 표현의 권리는 1954년 중공 최초의 헌법에 명시되었다. (Lazzarotto 1983 : 64 ~ 78)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오직 중공의 그리스도인들이 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존적이고 애국적인 성향을 가질때만 인정되는 것이었다. 1952년 말, “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고발을 받은 외국 선교사들은 추방되거나 투옥되었다. 정부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비록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막스 정부와의 어떤 화해도 거부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막스체제 내에서 기꺼이 일하고자 했고 중공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꺾기했다”는 것을 과시하는데 열렬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와 공산주의 정부 사이의 초기 관계는 서먹서먹했다.

1950년대 초반과 중반에 그리스도인들은 체재와의 잠정적 평화를 이루고 기독교를 구 “제국주의”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개신교에서는 삼자(三

自) 애국협회를,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민족캐톨릭애국협회를 결성했다. 이러한 민족적 교회 구조는 자치(Self-governance), 자급(Self-Support) 그리고 자생(Self-propagation)을 강화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관할국(Religious Affairs Bureau)과 함께 일했는데 그것은 정부의 국가공와 공산당의 연합전선 사무국의 수속이었다. 중공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국가에 대한 사랑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양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신학교교육, 임직, 세례, 출판, 그리고 전도를 수행해 나갔다. 교회 재산이 국유화됨에 따라 그들은 점점 가정에서 집회를 가지게 되었고 초교파 연합을 위해 단결했다. 그들은 교회 재산의 임대 수입, 교인들의 헌금, 교회가 경영하는 작은 기업과 농장, 그리고 심지어 정부 보조금으로 자급할 수 있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권위로부터의 독립을 확립하고 사도적 계승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을 초대교회에 직통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중국의 — 로마가 아니라 — 캐톨릭이라고 불리었다.

당과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는 1950년대 후반에 점점더 긴장되어 갔다. 1957년 이후의 극좌운동과 1960년대 초기의 “사회교육”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상적으로 공격하게 되었다. “대약진”을 위하여 전국민을 경제적 현대화로 총동원하는 모택동의 계획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공예배를 드릴 시간의 여유를 남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1966년의 문화 혁명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같은 전국적인 격변은 모택동의 시도였는데 그는 인민들이 자기의 혁명적 과업에 전적인 충성을 바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뿌리채 뽑아 버려야겠다는 착상을 했던 것이다. 젊은 홍위병들은 이슬람의 사원, 절, 그리고 교회들을 파괴함으로써 종교를 근절하려고 했다. 기독교는 특별히 철퇴를 맞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여전히 외국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과격분자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또한 기독교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노예화 함으로써 그들을 영구적 “계급투쟁”에 반대하는 “부르조와” 사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위병들은 종교 관할국을 해체시키고, 성경을 불사르고, 진귀한 종교 예술들을 부수어 버렸다. 그들은 공공예배와 신학교육을 금지하고 성직자와 평신도들을 고문, 투옥하고 죽이기 까지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례없이 무수한 가정 집회 속에서 비밀예배를 드려야만 되었다.

Ⅲ. 모택동 이후의 기독교와 현대화 : 1976년에서 1983년까지

이 기간 동안의 중공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유례없는 핍박은, 마오가 죽고 1976년에 “4 인방”이 체포되기까지 계속되었다. 등소평치하의 다소 온건한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 문화 혁명을 중단하고 3억 평방마일의 광대한 대륙중공을 2000년 경에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야심적인 목표를 선언했다. 농업, 공업, 과학기술, 그리고 국방의 “네가지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 지도자들은 새로운 “연합전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목적을 위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이 마오의 평등주의 정치적 열정 그리고 비물질적 지주 등을 대체하게 되었다. 현대화 계획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누구나 지위, 권력, 그리고 물질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자급자족이라는 마오의 교리는 폐지되고 오히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하고 외국대학에 학생들을 유학보내게 되었다.

종교집단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등소평은 문화혁명의 “계급투쟁”을 끝내고 종교자유의 정책을 재천명하게 되었다. 그는, 수천만의 중공 종교인들과 윤리적인 사람들이 — 티베트의 300만 불교도, 중공의 남 쪽과 북서쪽 전략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300만 회교도들은 — 만일 그들의 종교활동만 허락해 준다면 현대화 운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등소평은 또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기술적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배경을 갖고 있으며, 만일 공공예배만 허가해 주면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것도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일 인민들이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무슨 종교를 가지든 정부는 개의치 않는다”고 등소평은 말하게 되었다.

정부는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자이고 막시즘은 항상 종교 단 인민의 아편임을 지지한다”(Red Flag : 2)고 한다.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위한 몇몇의 헌법적 단계를 설정했다. 종교적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것은, 잘 정리된 교리와 의식, 그리고 조직을 갖춘 몇몇 종교에 국한되었다. 그것은 도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라고 공식적으로 못박았다. 신형법 147조는 1980년에 발효되었는데 타인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2년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중공의 세번째 헌법은 1978년 3월에 채택되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36조는 “시민들은 종교를 믿고…… 무신론을 믿고 무신론을 전파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Bohr 1981 : 6) 중공의 네번째 헌법은 이보다 한 술 더 떴다. 그것은 무신론을 전파하는 것을 허가하는 절을 삽입하고, 선언하기를 “어떤 국가 기관, 공공

단체, 또는 개인도 시민으로 하여금 어떤 종교를 믿거나 혹은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시민에 대해 차별할 수 없다.” 그것은 또한 “국가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Beijing Review 1982 : 10~29)

1979년 초, 정부는 종교관할국을 부활시켰다. 그것은 문화 혁명 중에 몰수된 종교의 재산을 되돌려 받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1978년 정부는 다섯개의 주요 종교협회가 재조직되는 것을 권장했다. 1979년 이후 정부와 당기관들은 산하 조직들에 권고하여 종교적 자유의 정책을 이행하도록 했다. 게다가 종교 사회의 대표들은, 중공인민 정치 자문회의회같은 조직들을 통해 자기들의 신앙을 소개하도록 권유받았는데 거기서 그들은 민족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적 차원에서 대표의 역할을 했다.

종교적 표현을 인정하는 것 — 제도적으로나 민중의 차원에서나 — 중국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힐 것이다. 정부는 종교의 학문적 연구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먼저 그 자신의 고양을 위해서였다. 불교와 이슬람교의 연구를 위한 기관 외에도 종교연구를 위한 센터가 1980년 난징대학에 창설되었다. 정부는 또한 최근에 북경에 있는 중공 사회과학 연구소에 세계종교 연구국을 부설했다. 여기서는 50명의 연구원들이 도교, 불교, 유교, 회교, 기독교, 라마교, 소수민족의 종교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Ⅳ. 중공 교회의 조직

마오 이후의 종교 부활에 가장 크게 놀란 측은 정부와 종교단체 자신들이었다. 한때 홍위병에 의해 “기생충들”이라고 매도되었던 도교신자들과 불교신자들은 그들의 종교기관을 재건했다. 불교도들은 공공예배를 위한 사원을 복구하고 1979년 이후 약 180명의 승려와 여승들을 성직에 임명했다. 회교도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기독교 역시 1949년 이후 최대의 활기를 띠고 있다.

막스주의 국가에서 생존하기 위한 중공 그리스도인들의 투쟁 결과 그들은 중국인이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중공 교회는 마오의 치하에서도 잔존했다. 그것은 그들이 선교사들과 제국주의 구조에서 독립된 조직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국가에 과시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중공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들로부터의 심리적 독립도 이룩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독교 신앙과 생활에 대한 그들 나름의 해석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초교파적 연합과 평신도지도자를 실험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과 고통 인내와 충성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신앙의 경험과 연관시킨다 그

들은 자신감과 활력 그리고 1949년에 더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서 환난으로부터 재기하였던 것이다.

기독교 부흥의 징조는 1979년 말경에 명백해졌다. 정부의 보조와 함께 교회는 다시 문을 열었다.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문화혁명 중에 차압당했던 교회 건물들도 현재 신자들이 재배치되고 건물이 손질되는대로 속속 그리스도인들의 손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혁명 중에 받지 못했던 교회 재산의 임대료를 요구해서 받아내었다. 정부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시설물들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주었다.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공장과 수용소와 감옥으로부터 되돌아와서 설교와 예배 인도 결혼과 장례, 주례, 감사절예배, 성경공부반 지도, 그리고 병자와 노인 방문 등의 목회사역을 재개하고 있다. 수천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사적 예배에서 벗어나고 있다. 삼자운동(Three Self Movement)의 지도자들로부터 온 보고에 의하면 약 200만명의 개신교 신자들의 중공에서 현재 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화혁명 이전보다 75만 명이나 더 많은 숫자이다. 그리고 주로 도시 지역에 약 700개의 교회도 있다는 이다 그 중 약 1/3은 젊은이들이고 1/3은 새 신자들이다. 신앙좋은 사람들은 교회예배와 성경공부반에 참석하려고 종종 수마일씩 여행을 하기도 한다.

상해에서는 여덟개의 교회에 2만이 넘는 개신교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는 모엔(전에는 무어 기념) 교회이다. 7명의 목사단과 3명의 여자 성경교사들이 5명의 은퇴목사들의 보조를 받으면서 주일 삼부 예배를 보면서 6000명 이상의 교인들을 돌보면서 협동목회(team ministry)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상해에서는 5명의 목사들이 청심교회에서 1300명의 회중들을 돌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수요일 저녁에 성경공부반이 운영되고 있다. 그 교회들은 성도들의 헌금과 교회재산 임대료를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

청소년 사업은 개신교도들 중에서 특별히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상해에서는 YMCA와 YWCA가 옛날 YMCA 건물의 두 층을 사용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광주 YMCA는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구비했는데 거기는 수영장도 포함되어 있다. 터안진에 있는 YMCA도 다시 문을 열었다. 북경에 있는 YMCA와 YWCA도 곧 부활될 것이다.

교리문답서, 경건서적, 찬송가의 출판등도 또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82년 말경에 개신교회는 1919년에 유니온에서 발행했던 성경을 100만부 이상 찍어내었다. 개신교도들을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경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쇄기를 더 들여왔다. 그러는 중에 단순화된 성격으로 지역 방언으로

된 성경 번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어와 기타 중공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의 언어가 그것이다. 개신교 새 찬송가가 출판 중에 있다. 그것을 선교 들이 전수했던 300여곡의 전통적 찬송가와 중국어와 중국 곡조로 된 100여곡의 찬송가를 포함하고 있다.

개신교도들은 또한 격월간으로 발행되던「天風」이라는 잡지도 재출판하고 있다. 여기에는 설교, 성경공부, 경건, 종교적 수필과 교회 소식이 담겨 있다. 개신교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끄는 문제는, 자라나는 세대 중에서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길러 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목사들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고작 50대 중반의 연령이기 때문이다. 1981년 2월에 남경 유니온 신학대학(Theological Seminary)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 그것은 문화혁명 중에 폐교되었던 학교였다. 여학생 22명을 포함한 51명의 학생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수천명의 지방자 중에서 합격된 사람들이다.

자기고향 교회의 보조와 신학교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 장래의 목회자들은 4년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그 교과목으로는, 성경공부, 조직신학, 교회사, 교리, 목회학,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영어이다. 재미있는 점은,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이나 모택동 사상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신학교 교장인 K·H·Ting 씨와 그의 동료 교수들은 신학과 예배와 찬송가에 대한 중국적 관점을 개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들은 초대 교회의 복음을 중공의 현재 상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서 교부들의 저서를 읽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양과 후주에 있는 개신교 신학대학들도 다시 문을 열었다.

교회 지도자의 양성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신학 교육에 있어 많은 개혁이 지금 추진 중이다. 남경의 신학교는 현재 3만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신과정을 개설했다. 그리고 성경공부와 교회사, 교리, 삼위일체, 그리고 복음주의에 대한 단기간의 “재교육 과정”이 푸지안과 제장같은 기독교가 강한 지역에서 여름 기간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삼자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졸업한 목회 사역자들은 시골 교회로 파송된다. 여성들과 소수 민족들이 이러한 평신도 훈련에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들은 최근에 목회자와 장로들로 임직되었다.

새로운 종교 개방 이후 중공의 천주교의 열심도 이미 대단히 고조되었다. 1980년 8월 15일 천진에서는 수천명의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성당에 재입당하게 된 것을 자축하는 행사를 가졌다.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열렬한 기도와 수백명의 성가대원들의 찬양에 감동을 받았다. 또 천진에 있는 천주교도들은 교리 공부반을 조직했다. 북경에서는 두개의 성당이 다시 문을 열었고, 상해에 있는 큰 성당에서는, 매일 있던 5시 예배가 다시 드러지게 되었고, 주말마다 있는

7 번의 미사가 재개되었다. 성물(聖物) 들도 날개돋힌듯 팔려 나가고 있다. 약 2 만의 개톨릭교도들은 최근에 세산으로 향하는 순례에 동참했는데 세산은 상해 서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마리아의 제단을 모신 곳이다. 더욱 많은 천주교인들은 또한 교회에서의 결혼, 세례, 견진성사, 장례, 그리고 기타의 성례를 요청하고 있다. 고해성사와 성경공부도 재개되었다. 카톨릭의 신학교육은 개인지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1982년 세산과 북경에 있는 천주교 신학교가 다시 문을 열어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선양 북동쪽에 있는 도시를 위해 계획되고 있다. 천주교의 정기 간행물인 「중공천주교회」로 다시 출판되기 시작했다.

2 개의 병렬적 교회 조직 — 국가적 차원의 조직과 지방적 차원의 조직 — 은 중공 기독교가 중공적이며 또한 기독교적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공공 예배의 활을 통솔하고 있다. 개신교측에서는 개신교 삼자 협회가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다. 중공기독교 공의회는 회중의 사역, 목회자 및 지도자 양성, 교리적 예배적 문제, 그리고 교회 재산의 운용등을 관장하고 있다. K·H·Ding이 그 양 조직의 지도자인데 그 양 조직은 연석회의를 통해 상호연관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개톨릭도 그것과 유사한 이중 조직이 있다. 중공천주교애국협회는 정치적 문제를 책임지고, 천주교전국행정위원회는 목회적 문제를 다룬다.

전인구에 비한다면 종교인의 숫자는 얼마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그리스도인의 반응에 있어서 이와같은 점진적 변화는 모택동 사후 중공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 발전의 하나로 보여진다. 공공예배의 부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산주의 운동의 반전통주의적, 반외세적 충동에 반대되는 개인적 문화의 표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두개의 목회적 조직 — 「중공 기독교 공의회」와 「천주교 국가행정위원회」 — 의 설립을 허용함에 있어 정부는 문화혁명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헌법에 관계된 부분까지 과거에 독점했던 것을 포기했다. 이러한 자유화는 고위층에 속하지 않는 한 단계 아래의 공직자들의 노골적 암시적 저항을 무릎쓰고 행해졌다. 그들은 사상적 정통성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맡은 계층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느라고 애쓰는 와중에 자유화 정책을 공식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정부가 이제까지 공적으로 지지해 온 정책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있고 힘차게 붙잡은 그 공적 신앙 고백의 기회를 철회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은 종교자유화정책의 한계에 대한 것인데 지면 관계로 생략함)

예수그리스도의 윤리적 교훈과 율법 송 무 현*

차 례

I. 서론	IV.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윤리적 덕목들
II. 예수의 율법	V. 예수의 윤리적 교훈과 특징
III. 예수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VI. 결 론

I. 서론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이다.¹ 선과 악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윤리적인 존재이다.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지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찌라도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윤리적인 존재라는 명제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렇게 윤리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성경이다.²

성경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교리부분과 윤리부분이다. 교리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하는 믿음의 대상을 가르쳐 주며, 윤리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갈 것인가 하는, 신앙하는 바를 행하는 실천적인 면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뿌리라고 할 것 같으면, 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꽃이요, 열매인 것이다.³

오늘날은 윤리와 도덕의 부재 시대이다. 진정 이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이끌고 나갈만한 윤리적인 철학이 없으며, 또한 이 시대를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modelist도 없다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사라져간 사람들 중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고 살펴 볼 때 예수그리스도 이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그 분의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많은 교훈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적게 되었다.

*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년